

AD FONTS PROGRAM

제 8기 AFP

최고지도자
인문학과과정



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

제 8기 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은 열며



인문학은 언어, 문학, 예술 등 인류의 정신적 유산을 이해하고, 인간 사회의 제반 현상 및 문제를 역사적, 철학적으로 성찰하는 학문입니다. 인문학은 인간의 다양한 삶의 방식과 문화를 읽고, 생각하고, 대화하며, 사물을 보다 큰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인문학의 탐구 대상에는 언어·문학·역사·철학 등의 전통적 영역 외에도 오늘날 주목되고 있는 과학, 기술, 경제, 경영, 디자인 등의 새로운 문화 요소들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화 요소들이 인간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문학을 통해서 인류 문명의 원천인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고자 여러분들께서 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리라 짐작합니다. 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은 즉각적 효용성이나 물질적 가치성만이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추상적 정신적 가치도 인간의 삶에 중요하다는 것을 체득하게 되는 과정이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학에 대한 여러 매체의 보도 내용이 대학별 취업률 비교, SCI 논문 발표 수, 세계대학평가 순위 등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물질문명의 압박 속

에서 사회적 책무를 가진 대학 또한 자유로울 수 없겠지요. 그러나 대학교육이 이러한 기능주의에 압도되어 당장의 '효용성'과 수치 위주의 '업적' 추구를 지상 명령으로 받든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학이 이러한 편협한 시각에 함몰되어 학문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생산성을 요구하는 자본의 논리에 끌려간다면, 결국 '인간'과 '인간학'은 사라지고, 오로지 '자본'과 '물질'의 형태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은 '겉절이'의 얇은 맛이 아닌 씹으면 씹을수록 깊은 맛을 내는 '묵은지'의 맛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지도층인 여러분들께서 제8기 AFP에 입학하시면, 20주 동안 여러분들께서 그 동안 맛보지 못했던 인류문화의 정수를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삶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성찰하는 인문학 정신의 안내로 우주와 인간 사회의 깊은 원천과 조우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인문학이 우리 자신과 세계를 얼마나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를 다양한 인문학 서적의 향기로운 행간 속에서 느끼는 기회도 갖게 될 것입니다. 인문학과의 조우는 여러분의 삶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다 풍요롭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사회와 인문학이 소통하고 또한 상생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이 기회를 가질 수 있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인문학의 향연인 AFP에서 여러분을 곧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학장 변 창 구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 개요

교육목표

우리 사회 각계의 지도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창조정신과 윤리정신, 글로벌 마인드 등 인문학적 지식의 고양을 통하여 최고의 지도자로 발전하도록 한다.

교과과정

AFP 과정 5대 주안점

- + 역사의식 함양과 미래사회에 대한 이해
- + 문화예술의 이해와 '풍요로운 삶' 모색
- + '삶의 내면'에 대한 철학적 성찰
- + 세계화시대의 다문화 탐방
- +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문화변동 이해

개설과정 목적

인문학이 한국 사회에서 보호의 대상으로 자기 스스로의 길을 찾지도 못하고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깡생'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천더기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서양의 대학제도에서는 인문학이 학부교육의 중심이며, 인문학 이후의 전문대학원(의대, 법대, 경영대 등) 교육의 밑거름이다. 인문학은 인간을 풍요롭고 숭고하게 만들며 그 학문적 추구는 사회적으로 당장 유용하지 않게 보이지만, 실제로 인문학은 가치창출의 원천이다. 인문학은 다음과 같이 인간이 처한 사회의 중요한 요구에 긍정적인 대안 혹은 해답의 단초를 제공한다.

- + 사회의 구성원으로 우리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상상력을 동원한 비판적 사고
- + 우리 사회의 기본가치에 대한 비판적이면서 열린 시각에서의 토의
- + 다른 사람들, 다른 시간, 다른 장소, 다른 문화에서 경험된 소중한 유산에 대한 이해와 인식

주임교수단

- + 주 임 교 수: 변창구(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학장)
- + 부주임교수: 배철현(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종교학과)
박성창(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아드 폰테스(Ad Fontes)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학문으로 인식되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고도의 경제성장 과정과 경제지상주의의 그늘 속에서 한때 인문학은 경제 및 사회 발전과는 무관한 비실용적 학문으로 간주되고 외면당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선진사회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오늘날 인문학적 교양과 지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CEO들과 많은 대중들의 관심은 인문학적 지식과 상상력에 기반을 둔 창의적 사고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세계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세계에 대한 거시적 이해의 필요성 및 인문학적 지식과 상상력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 미래를 바라보는 인문학의 지혜, 통찰력, 종합적인 판단능력을 얻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와 문화가 발전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사회의 여러 분야를 이끌어갈 최고지도자들의 성장을 위하여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은 우리 사회 각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2007년 9월에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교육 내용은 본 과정에 참여한 이전 수강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언론 등 관심 있는 분들에게서 월등한 차별성과 수월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과정이 제공하는 인문학적 지식과 상상력이 시대를 앞서가는 창조적 사고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굳게 믿으며 본 과정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 여러분들에게 창조적 에너지와 비전, 그리고 진정한 인문학적 리더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인문대학은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제8기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 프로그램

03월 08일(화)	입학식	
03월 15일(화)	조선시대 선비의 삶과 선비정신 한국의 국가브랜드 기록문화	정옥자 (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 허성도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03월 22일(화)	두보의 시세계 중국의 문자정책과 한자사용	이영주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이강재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03월 29일(화)	교내탐방 호한체제의 전개와 대당제국의 탄생 현대 중국의 이해: 개혁·개방정책을 중심으로	박한제 (서울대 동양사학과)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04월 02일(토) ~ 04월 05일(화)	중국 서안 학술 기행	박한제 (서울대 동양사학과) 이강재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04월 12일(화)	한국문학과 한국인 역사와 소설 어떻게 만날 것인가	권영민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김탁환 (소설가)
04월 19일(화)	한국문학사의 라이벌: 이광수와 이상 영웅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동아시아 영웅 신화 읽기	박성창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조현설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04월 26일(화)	원효와 한국불교 조선의 노비	남동신 (서울대 국사학과) 김건태 (서울대 국사학과)
04월 30일(토) ~ 05월 01일(일)	안동 학술 기행	김건태 (서울대 국사학과) 남동신 (서울대 국사학과)
05월 03일(화)	현대 일본의 흥망성쇠 메이지유신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박 훈 (서울대 동양사학과)

05월 10일(화)	공휴일	
05월 17일(화)	조선 유학의 특징 초기불교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는가?: 「법구경」읽기	허남진 (서울대 철학과) 강성용 (서울대 HK)
05월 24일(화)	문명과 종교 현대미술, 어떻게 볼 것인가?	김종서 (서울대 종교학과) 오병남 (서울대 미학과 명예교수)
05월 31일(화)	훈민정음 이천년을 함께한 명주실의 소리, 가야금	김주원 (서울대 언어학과) 이지영 (서울대 국악과)
06월 07일(화)	상상력의 혁명과 자아의 발견 책과 지식의 미래	진형준 (홍익대 불어불문학과) 장은수 (민음사 대표)
06월 14일(화)	동양화와 인문학적 상상력 조선 백자의 아름다움	김병중 (서울대 동양학과) 특별초청인사
06월 21일(화)	칸트와 이성비판 카프카의 변신	백종현 (서울대 철학과) 최윤영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06월 28일(화)	셰익스피어 미국의 포스트모더니즘과 다문화주의	변창구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정상준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07월 05일(화) 6, 7, 8기 기합동	행복 인류최고의 가치: 사랑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배철현 (서울대 종교학과)
07월 12일(화)	논문 발표	
07월 19일(화)	수료식	

인문학의 향연 이끄는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

“현대건설, 인문학 향기에 빠지다”

올해 초 장기 미래전략인 ‘비전 2015’를 선포하고 ‘변화와 혁신’의 새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현대건설에 요즘 ‘인문학’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22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최고경영자(CEO)인 김종겸 사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무리 뛰어난 건물이라도 인문학적 감성이 덧입혀지지 않으면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인문학이 건설의 미래를 좌우할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며 인문학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김 사장은 ‘문사철(문학, 사학, 철학)’로 일컬어지는 인문학을 공부하고 향유할 수 있는 공동의 장을 다양하게 마련해 오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건설업계 최초로 개설돼 현대건설그룹 신입사원 272명이 3일 동안 수강한 서울대 인문학 과정(AFP)도 그 가운데 하나다.

김중겸 사장은 지난 2008년 제3기 서울대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에 참여했으며, 이후 ‘무한경쟁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현대건설그룹 신입사원 커리큘럼의 하나로 서울대 인문학 과정(AFP)을 열었다.

특히 현대건설은 2010년 신입사원 가운데 15명을 철학, 심리학, 조각 등을 전공한 사람들로 뽑았다.

신입사원 교육 커리큘럼도 이번에 개설한 서울대 인문학 과정뿐만 아니라, 국립중앙박물관 관람, 문화예술 공연 관람 등 인문학 중심으로 바꿨다.

김경목 신입사원(전기직)은 “다소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러 교수님들의 인문학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분야든 최종적인 목적은 ‘사람’에게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며 “글로벌 톱 리더로 나아가기 위해 역량강화에 힘쓰는 한편, 인문학적 품격을 갖추는 데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중겸 사장은 “역사와 종교, 예술, 철학, 문학 등 인문학에 대한 기본소양과 지식은 새로운 상상력과 무한한 창의력을 샘솟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라며,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의 향기’가 묻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수정 기자 isun1229@asiatoday.co.kr〉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 수강생 추천의 글

+ 김병일 한국국학진흥원 원장(前 기획예산처 장관)

뒤늦게 예수님이 주위의 권유로 참여한 AFP 1기 과정에서의 인문학 공부가 경제분야에서 살아온 나의 삶을 확 바꾸어놓았다. 수료 후, 나는 지금 4년째 안동의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과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선현의 지혜와 삶의 가치를 현대인에게 심어주려고 조그마한 힘을 보태고 있으니 말이다.

+ 윤재윤 춘천지방법원 법원장

인문학적 시각이야말로 역동적인 재판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 같다.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가 재판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 성명훈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원장

환자 입장에서는 의학의 자연과학적 요소가 크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환자들을 직접 대하며 치료하는 일을 하는 '임상의사'들에게는 자연과학적인 이해에 근거한 판단 이외에도 인간관계의 이해, 특히 질병으로 고통 받는 자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함을 진료 현장에서 경험을 더해 갈수록 깊이 느끼게 된다.

+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경영자로서 지녀야 할 덕목과 리더십 개발을 위해서는 인문학적 사고와 판단이 필수적이다. 나는 오늘 저녁 과거 르네상스의 인문학자인 마키아벨리가 했던 것처럼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고 서재에서 인문학과 벗하고자 한다.

+ 류재열 조일건설 대표이사 회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목 받는 학문으로서 인문학이 떠오르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현상이라 하겠다. 그 이유는 인간이 소원하는 바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지 명왕성에 갈수 있는 고도의 기술력 확보가 아니기 때문이며, 인간 지고의 가치인 행복은 어느 때를 막론하고 정보나 기술이 아닌 진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 김형오 국회의원(前 국회의장)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정치인들도 인문학에 허기와 갈증을 느껴야 한다. 인문학의 식탁에서 굶주린 배를 채우고 인문학의 샘터에서 메마른 목을 축여야 한다....이제 나는 가을 산의 오솔길을 걷는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에 오크통 속에서 오래 숙성시킨 와인의 향기로운까지 더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것이 바로 인문학이다.



수업 안내

교육기간

2011년 3월 8일(화) ~ 2011년 7월 19일(화)

교육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6:00 ~ 10:00(1일 2강좌)

국내 워크숍(1박2일) 1회, 국외 워크숍(3박4일) 1회

교육장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0 현대산업개발 빌딩

전화 02)2008-9111

지하철 2호선 삼성역 7번 출구



AFP관련 문의처

전화 02)880-2570, 2637(인문대학 AFP 사무국)

팩스 02)871-0064

홈페이지 www.snuafp.com

주소 (151-745)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6동 313호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 사무국

입학 안내

모집인원	45명 내외
입학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기업체 CEO(회장·사장·임원) + 정부 고위공무원 / 부장급 이상 관·검사 / 국회의원 / 장성급 장교 + 교수 / 금융인 / 언론인 / 의사 / 변호사 /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인사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지도급 인사 ※ 전·현직 모두 지원 가능 / 부부동반 지원 가능
이수요건	출석 3분의 2 이상 / 기말보고서(에세이)
모집기간	2011년 1월 24일(월) ~ 2월 18일(금) 18:00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라인 지원서 (AFP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입력) 2) 재직증명서(재직자에 한함) 3) 증명사진(반명함판 규격, 150kb 이상의 jpg 또는 png파일) 4) 회사 또는 기관 안내 자료 5) 최근 2년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감사보고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는 중소기업체 혹은 비상장 기업에 해당함. ※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지원접수 인정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p>입학지원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입력 제출서류는 가급적 이메일 접수 이메일 접수 주소: apply@snuafp.com(AFP 사무국 입학전형 담당자) 홈페이지: www.snuafp.co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메일 접수가 어려우실 경우: 아래 주소로 우편 접수 가능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6동 313호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1년 2월 25일(금) 개별 통지
등록기간	2011년 2월 28일(월) ~ 3월 2일(수) (수강료 등은 추후 통지함)

AFP *Ad Fontes* Program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Seoul National University